



이관호 지부장(좌측)과 정주선씨.
김제지부의 안팎 살림을 맡아 하는 주역들이다.

지역 양돈인들의 여유로운 쉼터 김·제·지·부

김 제지부는 지난 '97년 본회 83개 지부·지회 중 우수지부로 선정된 지부로써 현재 중앙회 회원 40여명을 가진 지부이다.

지부는 '89년에 설립되었으나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작년인 '97년에 이르러서 현 이관호 지부장의 추진력에 힘입어서 현재의 지부 사무실을 새로이 열고 많은 활동과 함께 대폭적인 회원확충이 이루어졌다.

지난 '97년 한해를 통털어 우수지부로 선정된 이유도 돼지요리 시식회를 비롯한 많은 지부활동과 회원들의 대폭적인 증가에 있다고 보여진다.

‘믿음과 친절’ 아래 회원들에게 득을 줄 수 있게 노력해

200여 농가가 양돈을 하고 있는 김제지역에는

협회를 제외한 다른 양돈모임이 따로 있지 않아 모든 양돈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서로 친목을 다지는 등 협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은 것처럼 보였다.

김제지부는 외성적이며 업무처리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이관호 지부장과, 양돈인의 품위를 지닌 최병삼 부지부장, 젊은이다운 추진력을 소유한 이재복 총무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화합의 조화를 이룬 듯한 일가(一家)같은 지부이다.

매월 11일에 회원 대다수가 참석하는 열의속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이때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은 물론 비수처럼 날카로운 지적, 심각한 토론 등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현 이관호 지부장은 ‘믿음과 친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기술 도입과, 그 밖의 정보들과 함

**“양돈 자체만으로는 장인정신을 생각하고 직업
과 그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나, 분뇨처리 문제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취급을 당할 때는 사실상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양돈인들을 몰아세우기 전에 농업의 존귀성도
한 번쯤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관호 지부장

계 사료, 약품 등을 최대한 싼 원가에 구입하여 이윤없이 회원들에게 공급하는데 충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기자재의 경우 회원들의 편의성을 위해 많은 종류의 기자재를 지부사무실에 직접 진열해 놓고 어느곳보다 싼 가격으로 이윤없이 회원들에게 공급하여 회원들이 실제로 지부에서 경제적으로 득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에도 작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 작년에 이어 지역에서 협회의 좋은 이미지 창출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올해의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적자에 따른 협회운영의 어려움으로 작년처럼 성대한 돼지요리 시식회 등의 홍보사업

이 사실상 저조한 상태라 말하며, 중앙회의 지부 지원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죄인취급을 하기전에 농업의 존귀성도 한 번 생각해 주길...

지부장은 “양돈 자체만으로는 장인정신을 생각하고 직업과 그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나, 분뇨처리 문제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죄인취급을 당할 때는 사실상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양돈인들을 몰아세우기 전에 농업의 존귀성도 한 번쯤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바람을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회원들은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항상 앞서나가는 축산인이라고 말하며, 양돈인들의 진취적인 욕구는 다른 여타 축종과 비할 바가 아니라며 자신에 찬 표정을 보였다.

“아직까지 지역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양돈인의 대화합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양돈인들이 사람 좋은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양돈인부터 앞장서서 서로 자주 만나고 화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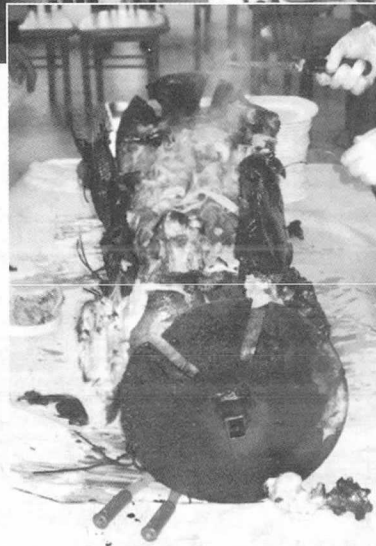


지난 '97년 3월 2일 지부사무실 현판식

는 모습을 보여 지역감정을 말끔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체 양돈인들을 위하는 마음을 내어보였다.

하지만 김제지부는 분노처리에 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작년의 경우에는 김제에서 30여 농가가 벌금형을 받는 등 법을 어긴 범법자란 자격지심으로 양돈가들의 심적부담이 극심하다고 한다. “더 없이 순박한 양돈농가들이 죄인취급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양돈을 해야하나?, 내가 이 일 아니면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는 양돈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이미 두 농가가 이로인해 양돈을 그만 둔 상태이며 다른 농가들도 마음이 편치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선진외국의 예와 같이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분노 공동처리장 등 완벽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며 한편으로는 검찰의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이관호 지부장은 덧붙였다.

김제지부는 총무님을 비롯 회원님들이 자신의 가계인 양 지부를 아끼며, 비 회원 농가들도 시간이 없어 동참은 못하나 외부에서 협회의 운영



▲ '97년 3월에 성대히 개최한 돼지고기요리 시식회

◀ 시식회를 위한 통돼지 바베큐

에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지역에서 지부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 알 것 같았다.

또한 지부의 홍일점인 정주선씨도 맡은 바 업무는 문론 회원들에게 항상 밝고 친절하게 대해 분위기 있는 따뜻함을 창출해 지부를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말그대로 양돈인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나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들리는 여유로운 하나의 커피숍 같은 곳이 바로 김제지부이다. <취재 : 조진현> **義豚**